

## 1 상해전자전 수출계약 2억 1천 5백만달러



본회와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지역 주요 전자전 주최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던 『제3회 2006 상해 아시아전자전(AEES : Asia Electronics Exhibition in Shanghai)』이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산전자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확고히 하면서 지난 11월 26일, 상하이 신국제박람회장에서 성황리에 폐막되었다.

본회는 이번 전시회에서 삼성전자와 우수 중소벤처기업 등 70개사 122부스로 5개국 중 가장 큰 규모의 국가관을 구성하여 참가 했으며, 삼성전자의 52인치 와이드 Full HD TV, Black Carbon-Ultra Mobile폰, 40나노 32기가 낸드플래시 메모리 등을 비롯하여 동양&P, 삼화콘덴서, 엘림전자, 이렌텍, 제니컴, 디케이 테크놀로지 등 우수중소기업의 파워서플라이, 커패시터, 고해상도 모니터, PMP, UV센서, PVR, 홈네트 워크시스템 등 첨단 국산전자제품을 대거 출품하여, 많은 바이어, 관람객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CCTV, 상해TV, 경제일보 등 현지 언론들로부터 질과 양 모든 면에서 『2006 상해 아시아전자전』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참관객 약 7만 6천여명, 수출 상담 10억 7천만 달러, 수출 계약 2억 1천 5백만달러의 풍성한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동관은 제일 좋은 위치인 W1홀의 주출입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입구에 한국관 홍보용 대형 특별 무대를 설치하고 태권도, BE-BOY 댄스 등 다양한 한류 공연으로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전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었다.

본회는 2007년도에도 한국기업의 대중국 시장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수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참가하는 한국관을 구성하는 등 금년보다 전시 규모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제4회 상해 아시아전자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 2 China RoHS 및 REACH 대응을 위한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China RoHS 및 REACH 대응을 위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정동창 산자부 산업환경팀장은 “중국이 예상보다 빨리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을 확정하고 관련 표준을 만든 것은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유럽연합의 RoHS와 달리 중국은 강제인증 부분이 많아 국내 기업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또 EU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주로 대기업인 반면에 중국에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도 많아 체계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이나 RoHS 대응 대책들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산자부는 중국과 상호 협력 체계를 가동해 국내 인증기관과 중국 시험기관과의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정책본부장을 반장으로 업종별단체·대기업임원급이 참가하는 국제환경 규제대책반을 꾸려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까지를 집중 홍보·교육기간으로 정하고 서울·부산·구미·광주·대구·천안을 순회하는 긴급 설명회를 준비 중이다. 중소기업청도 주요 권역별로 휴대형 분석기를 확보, 현장을 순회하는 ‘이동분석지원반’을 내년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강홍식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팀장은 “정확한 환경규제 국제표준이 없는 가운데 EU·일본·중국 등의 환경인증 부착방식, 시험요구 항목이 모두 달라 전자업체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삼성·LG 등 대기업이 국제표준을 주도하면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더욱 적극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시 : 2006. 12. 19 (화)
- ▶장소 : COEX 그랜드볼룸 신관 103호
- ▶주최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 ▶주관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문의: 환경안전팀 김기정 과장  
Tel: 02-565-9326  
FAX: 02-565-9327  
E-mail: kkim@gokea.org

## 3 미 특허법 세미나 개최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대한변리사회가 11월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2007년 개정되는 국내 및 미국 특허법에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및 국내 특허법의 개정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이 같은 개정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특허청의 신진균 팀장이 2007년 시행되는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전 미 특허심판원장 브루스 스토너가 ‘미 특허제도의 대변화’라는 주제로 개정된 미 특허법에 대해 강의를 갖는다.

이어 G&B로펌 한국그룹장인 이택수 변리사가 특허법 개정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에서는 국제특허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정되는 특허법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4 임베디드 전문인력 공급

본회에서는 산업현장의 수요와 이공계 교육간의 부족한 산업기술인력 수급의 양적/질적 미스매치 해소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현장맞춤형 산업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공계 졸업생을 대상으로 임베디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가를 양성 회원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문의: 인적자원개발센터 전희경 대리  
Tel: 02-553-0941(exl 239)  
Fax: 02-508-4199  
E-mail: vvien@gokea.org